

안 아르튀스 베르트랑의 작품을 응용한 니트 디자인  
- 자연주의 개념을 바탕으로 -

이승아 · 홍은희 · 윤지원 · 이연희<sup>†</sup>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Knit Design Inspired by Yann Arthus-Bertrand's Works  
- Based on the Concept of Naturalism -

Seung-A Lee, Eun-Hee Hong, Ji-Won Yoon and Youn-Hee Lee<sup>†</sup>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2009. 12. 7. 접수일 : 2010. 3. 2. 수정완료일 : 2010. 4. 10. 게재확정일)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naturalistic knit designs inspired by Yann Arthus-Bertrand's works.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the present style of naturalism and history of naturalism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then developed desig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scientific realism originated from a philosophical concept was adopted in literature and other genres, its meanings have been altered and comprehensively expanded according to the genres of which the term is being used. Naturalism of the modern times carries strong message of ecolo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Second, the modern naturalism in fashion is manifested in expressing the image of nature and plasticity, instead of a mere use of the natural materials. As the aspects of ecology become more significant, elements of retro, recycle, or grunge are additionally integrated in fashion. Third, Naturalism expressed in knitwear is similar with that of other clothing in terms of color and textile, however, silhouette in knitwear is unique in its general naturalness and flowing effects. Embroidery, knitting of Jacquard and Intarsia, or crochet is used to express forms of objects from nature. Visual effects regardless of the contents of yarn, and pattern effects after knitting by using yarn, have influences on the material. Forth, the eight knit designs in expressing naturalism presented in this study took a motif from the works of Yann Arthus-Bertrand. They were created by rendering rhythm of the landscape with emphasis on brown color. Contour and surface touch were expressed through yarn and the structure of knit.

*Key words: naturalism(자연주의), knit design(니트 디자인), knitwear(니트웨어), hand knitting(핸드니팅), Yann Arthus-Bertrand(안 아르튀스 베르트랑).*

I. 서 론

최근, 세계는 발달된 문명사회의 폐단으로 훼손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연과

공존하는 인간적인 삶이 가장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은 자연보호, 환경보존, 자연으로의 회귀 등과 같은 단순히 자연에 대한 초점뿐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에 대한 관점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환경은 중요한 메가

<sup>†</sup> 교신저자 E-mail : yiyhee@hanyang.ac.kr

트렌드로 자리 잡아 실질 상품에도 반영이 될 뿐 아니라 상품을 선택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개개인의 만족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까지 생각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sup>1)</sup>. 이는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심으로 재해석되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이념과 문화로 표현되었고, 문화의 한 흐름을 이루는 복식에 있어서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자연의 순수성과 여유로움 및 정신적 풍요를 갈망하는 현대의 자연주의는 예술과 문화의 다방면에서 부각되고 있으며, 현대의 패션에서는 자연친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sup>2)</sup>. 현대 사회의 패션은 탈공업화 사회와 인간 중심의 미래지향적 산업을 지향하면서 독창적인 형태와 소재, 고유의 이미지 창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현대 복식은 다양하고 독특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으며, 그 중 니트는 디자이너나 예술가들을 통해 가장 패션어블한 공예인 동시에 아트로 인정받으며 과거의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양상과 다양한 테크닉의 발전을 보이고 있어 섬유 예술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sup>3)</sup>.

자연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대변되는 자연주의는 다양한 조형 활동 분야를 포함하여 패션분야에도 다양한 테마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인간성 상실과 테러, 전쟁, 자연 재해,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 사회·경제·문화적 현상들은 사람들의 소비성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옛 것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감성’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풍조로 수공예적 감각의 기법을 활용한 디자인 혹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니트나 트위드 소재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니트는 수공예적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는 것으로, 어떠한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같은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짜는 방식, 기법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난 뿐 아니라 스타일링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여 실용성과 패션성 양쪽

측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고부가 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자연주의의 개념과 복식에 나타난 자연주의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니트웨어에 자연주의가 어떤 방법으로 표현되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현대 패션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자연주의와 니트웨어의 다양한 조형적 이미지에 맞는 니트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진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얀 아르튀스 베르트랑(Yann Arthus-Bertrand)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오랜 세월에 의해 형성된 대지, 하늘, 바람, 동굴, 지층의 자연물 형상을 표현하여 작품으로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I. 자연주의

고대 그리스어로 ‘피시스’라고 하는 자연은 태어나서 자라고 쇠약해져 소멸하는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생성 발전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자연의 한 부분인 인간은 삶의 바탕이 되는 자연의 무수한 영향을 받으며 생활 속에서 자연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이미지를 형성하고 다양한 표현을 하는 매체로 도입해왔다<sup>4)</sup>.

자연주의라는 개념은 과학적 사고로 예술과 철학에 나타난 운동인데, 학문영역에 따라 다르게 정의 사용되고 있다. 원래 자연주의란 유물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를 뜻하는 말로 고대철학에서 사용되던 것이 17세기 미술 분야에서 사실 그대로 그리려는 화가를 자연주의자로 지칭하며 미술비평에 있어 줄라가 사실주의자, 현실주의자 등으로 사용하였다. 18세기에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부활을 기대하며 자연스럽게 그리스로마 시대의 자연주의적 사고와 양식이 다시 일어났다. 그 후 문학에서도 자연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19세기에는 그 의미에 있어 사실주의와 구별을 지으려고 했다<sup>5)</sup>. 19

1) “A Checklist for Sustainability” 삼성디자인넷 (2009년 7년 24일 [2009년 8월 31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samsungdesign.net/Report/IndustryTrend/TrendView/Default.asp>

2) 김희연, “자연주의 복식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6권 7호 (2006), p. 32.

3) 최경희, “현대니트의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4권 3호 (2000), p. 116.

4) 이지영, “자연의 리듬을 모티브로 한 니트디자인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57.

세기에는 과학적 방법론의 발견과 도입으로 사실주의보다 우위에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사물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분야에 따라 그 의미는 약간씩 다르나, 포괄적으로 자연주의란 자연을 미화하거나 이상화하지 않고 자연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 속에 젖어 들면서 자연과 같이 호흡하는 표현양식으로 작가가 자연의 입장에 서서 자연의 현상의 하나로서 작품을 제작하려는 태도라 하겠다<sup>6)</sup>. 현대의 자연주의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 과학적 사실주의가 환경을 중시하는 자연친화적 의미를 갖는 자연주의로 변화하였다<sup>7)</sup>. 이렇듯이 자연주의는 인간 중심의 사상과 자연의 존중을 바탕으로 시대에 따라 다른 용어로 표현되었는데, 최근에는 산업화에 따른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의 심한 훼손으로 환경 보호나 자원 절약 등 다양한 환경 친화적 개념으로 대표되고 있다.

## 2. 복식에 나타난 자연주의

복식에서 자연주의는 내추럴리즘, 내추럴 실루엣, 내추럴리즘 이미지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자연 현상을 모티브로 하거나, 자연의 색과 재료를 사용하거나 본래의 형태와 성질을 과장하지 않은 편안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sup>8)</sup>. 이렇듯 복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디자인 요소인 형태, 실루엣, 색채, 소재를 통하여 표현된다. 형태는 자연물을 사실 그대로 표현하여 디테일이나 문양 또는 전체 실루엣으로 나타내거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실루엣은 재료 고유의 특성을 살려 신체를 자연스럽게 감싸는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색채는 자연물을 연상시키는 색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천연 염색, 표백되지 않은 색으로 표현된다. 소재는 천연 섬유나 천연의 소재를

사용하여 재료의 재질, 질감뿐 아니라 조직으로도 표현이 되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자연주의는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대그리스 복식은 인체를 이데아가 반영된 가장 완벽한 것으로 여겨 인체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트레이퍼리로 나타내었다<sup>9)</sup>. 18세기 중엽의 신고전주의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철학과 미를 모방하여 엠파이어 스타일의 슈미즈 드레스가 유행하였다. 19세기 말에 나타난 아르누보는 곡선을 통하여 자연의 유동적 형태를 표현하고 사물의 본질이나 자연의 창조 활동의 유기적 과정을 나타내었다<sup>10)</sup>. 복식에서는 꽃, 동식물 등의 자연의 모티브가 자주 많이 사용되었다. 이후 아르데코 양식은 엠파이어 튜닉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다시 인체의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추구하였다.

2차 세계대전 후 밀리터리 룩이 유행할 때 크리스찬 디올의 뉴룩은 새로운 실루엣을 소개하였다. 60년대 유럽에서 자연주의의 복귀운동이 일어나면서 물질만능주의와 소비사회를 비판하고, 자연과 조화된 인간의 자유를 주장하며 히피 룩이 나타났다. 70년대에는 복고풍의 영향으로 에스닉 룩이 유행하였다. 80년대 중반에는 지구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며 자연을 보존하고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에콜로지라는 테마가 사용되었다. 90년대에는 패션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리사이클링, 그린지, 네오 히피로 나타났다<sup>11)</sup>.

현대 사회에 나타난 복잡성은 양식에서도 복잡되어 현대 패션에서 나타난 자연주의 복식의 경향을 분류하여 보면 이경아 외<sup>12)</sup>는 에콜로지 경향을 자연주의, 원시주의, 이국취향으로 구분하였고, 김미영<sup>13)</sup>은 에콜로지, 에스닉, 리사이클링과 그린지

5) P. N. Skine and L. R. Furst, *자연주의*, 천송걸 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p. 1.

6) 김미영, “자연의 조형성을 응용한 현대의상디자인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5, 재인용, 서국진, “도예에 반영된 자연주의 표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 4.

7) 이윤미, “신사임당 초충도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7권 2호(2007), p. 138.

8) 김희연, *op. cit.*, p. 33.

9)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81), p. 56.

10) *Ibid.*, pp. 61-63.

11) 김미영 *op. cit.*, pp. 31-32.

12) 이경아, “복식의 자연주의 양식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지* 37권 3호 (1998), pp. 253-273.

로 나누고 있으며, 김희연<sup>14)</sup>은 복고적 요소, 에콜로지적 요소, 원시적 요소, 이국적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주의 복식은 인체 위주의 신체우선형으로 열린 형태, 비한정적인 형태의 범주에 속하며, 자연색의 사용으로 평면 통합 형태의 범주에 든다고 하였다<sup>15)</sup>. 원시적이고 에스닉 무드는 전형적인 자연주의의 표현이며, 현대로 지나올수록 환경적 측면의 부각으로 인한 복고적, 리사이클링, 그린지와 같은 요소가 추가된다고 보여진다. 이봉덕 외<sup>16)</sup>는 21세기 전화기의 패션의 특성 중 자연주의가 총괄적인 에콜로지의 한 양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자연적 요소를 도입한 생태주의와 인간 신체를 강조한 인간 중심으로 표현되는 신자연주의로 구분하였다. 과거에는 인체의 실루엣을 살리는 단순한 인간 중심의 복식으로 나타난 반면, 현대에는 기본적인 실루엣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의 인식을 복식의 재료나 방법을 통하여 과거와는 다른 자연주의를 나타내고 있다. <표 1>은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자연주의의 성격을 구분하여 보았다.

최근 컬렉션에 대한 분석을 보면 자연에 대한 갈망에 의한 자연주의적 감성, 보헤미안 룩, 천연 소재의 사용에 의한 테마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스타일링의 관점에서 보면 <그림 1>과 같이 헐렁한 실루엣을 나타내거나 또는 과거의 보헤미안 룩과 다르게 <그림 2>와 같이 페미닌 스타일로 클래식한 페이지즐리, 낙엽 같은 가을 느낌의 프린트를 입고,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한다. 자연

의 변화를 표현하는 텍스처의 러프한 질감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그림 3>과 같이 블랙과 그레이, 내추럴 브라운에 가공하지 않은 듯한 모피, 헤어가 있는 울, 가죽, 빈티지 데님과 부츠의 거칠고 모던한 조화를 제안하기도 한다. <그림 4>와 같이 아프리카의 에스닉한 느낌이나 사파리 룩의 표현을 자연물의 문양이나 색채에서 가져오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으로 더할 수 있다. 또, <그림 5>와 같이 보헤미안 룩의 헐렁한 스타일링과 레이어링, 구조적이지 않은 실루엣으로 표현된다. 아이템이나 패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림 6>과 같이 저어지의 드레이퍼리를 이용한 아이템들은 그리스복식의 느낌을 가지면서 소재의 느낌을 살려 자연스러운 인체 곡선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7, 8>과 같이 쉬폰과 같은 얇은 소재에 변형 페이지즐리, 내추럴 모티브, 꽃무늬, 에스닉 패턴물을 흐릿하고 번진 것처럼 표현하는 등 다양하게 표현되어 소재의 특성을 살려 여성스럽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나타내기도 하며, 모던아트의 방법으로 자연물의 모티브가 사용되어 자연주의로 표현되기도 한다(그림 9).

과거에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의 색, 대지의 색, 흰색을 가미한 내추럴한 베이지 등이 주로 사용되고, 깃털, 나비, 꽃 등 자연의 오브제를 그대로 이용하여 단순히 표현하는 경향이었으나 최근 패션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자연주의 트렌드는 기본적인 실루엣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의 인식을 복식의 재료나 방법을 통하여 단순한 자연물을 모티브

<표 1> 자연주의 관련 선행 연구

이경아	김미영	김희연 외	이봉덕 외	표현 방법
자연	에콜로지	에콜로지	생태주의	자연의 소재, 색, 문양의 사용
원시		원시		자연 그대로의 투박한 가공되지 않은 느낌
이국	에스닉	이국		· 현대문화와 다른 민족 고유의 스타일 · 민족과 지역을 초월한 문화/자연 · 히피적 요소
		복고	인간 중심	고대 그리스의 자연스러운 실루엣
	리사이클링과 그린지			자연의 재활용

13) 김미영, op. cit., pp. 1-107.

14) 김희연, op. cit., pp. 31-41.

15) Ibid., p. 35.

16) 이봉덕,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6권 11호 (2002), p. 168.



<그림 1> Cloe. 09FW.



<그림 2> Cloe. 08FW.



<그림 3> Alexander Wang. 08FW.



<그림 4> Cacharel. 07SS.



<그림 5> Marc Jacobs. 06FW.



<그림 6> John Galiano. 07SS.



<그림 7> Dolce & Gabbana. 08FW.



<그림 8> Luella. 08FW.



<그림 9> Marini. 06SS.



Derek Lam



Douglas Hannant



Roberto Cavalli



Byblos



Basso & Brook

<그림 10> 2008 FW 컬렉션에서 보이는 신자연주의 (출처: www. Samsungdesign.net)

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상물을 모티브로 하여 어둡고 거친 느낌을 표현하는 과거와는 다른 자연주의를 나타내고 있다. 지층의 굴곡과 변화를 표현한 형태를 사용한 가공하지 않은 느낌의 별키한

형태, 지층이 갈라진 듯한 느낌, 표면에 크랙이 가도록 가공하거나 부드러운 파인 게이지 니트나 구김 등의 방식을 통해 수공예적인 느낌을 만들어낸 소재 또는 <그림 10>과 같이 굵고 투박한 니트 소

〈표 2〉 자연주의와 신자연주의 특성

	자연주의	신자연주의
실루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흐르는 듯한 실루엣</li> <li>·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실루엣</li> <li>· 불규칙한 라인의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li> <li>· 바이어스 재단에 의한 부드러운 곡선 구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키한 형태</li> <li>· 내추럴한 외관</li> <li>· 텍스처 포인트를 둔 다양한 변형</li> </ul>
디테일 및 아이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깃털, 나비, 돌, 꽃 등 자연의 오브제 이용</li> <li>· 식물줄기의 형태를 응용</li> <li>· 과장되지 않은 디테일로 자연 이미지를 현대에 맞게 재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의 느낌을 보여주는 장식효과</li> <li>· 대지, 하늘, 바람, 생물 등 모든 자연에서 그 형태를 따온 듯한 조직</li> <li>· 자연의 재현, 미스터리하고 환영 같은 버전으로 야생의 창조물이 모티브로 응용</li> </ul>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적인 색감으로 소박함 추구</li> <li>· 누드 스킨 톤처럼 인체와 융화되는 컬러</li> <li>· 천연염료를 사용한 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둠의 지하세계 이미지</li> <li>· 어둡고 깊은 다크 톤, 매끈하고 무게감이 있는 스트롱 오렌지 컬러 포인트</li> <li>· 오랜 세월 대지 안에 존재해 여러 성분이 혼재된 느낌의 딥 컬러</li> </ul>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소재</li> <li>· 드레이프성 좋은 소재(머슬린, 얇은 실크, 거즈, 린넨이나 쉬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층이 갈라진 듯한, 표면에 크랙이 가게 가공한 가죽</li> <li>· 부드러운 파인 게이지 니트나 브러싱 소재에 스토킹, 구김 등의 방식을 통해 만들어낸 수공예적 느낌</li> <li>· 기모가 올라온 울 가공 소재</li> <li>· 별키한 니트, 손뜨개처럼 굵고 투박한 니트</li> </ul>

재, 광물의 컬러와 질감을 표현한 소재 등 다양한 느낌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과거에 표현된 밝고 단순한 자연물과 색을 그대로 천연소재만을 사용하여 형상화 하지 않고, 거칠고 어두운 자연물을 다양한 기법으로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을 신자연주의라 하여 기존의 자연주의와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표 2〉는 기존에 보이는 자연주의와 최근 패션에서 표현되는 자연주의를 구분하여 특징을 나타내었다.

### 3. 얀 아르튀스 베르트랑

환경에 관심으로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한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고 할 수 있다. 작가들의 작품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측면에서의 자연을 찾아볼 수 있다. 조형열기구 사진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얀 아르튀스 베르트랑은 열기구를 타고 하

늘에서 사진을 찍어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원을 소비하고 생산하며 이용하는 것을 지속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sup>17)</sup>. 그는 1995년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아 ‘하늘에서 본 지구’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150여 개국의 상공에서 30만 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 자연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인간에 의해 파괴된 모습까지 사진에 담아내고 있다. 구찌와 같은 유명 디자이너들도 함께 참여하여 영화 ‘홈’ 제작에 참여하는 등 프랑스 휘가로지가 선정하는 지구를 구하는 10인의 영웅으로 선정되었다<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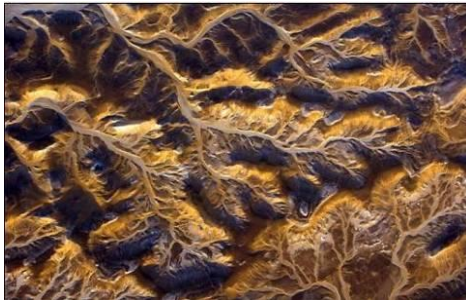
그의 작품은 〈표 3〉과 같이 다른 각도에서 우리의 환경을 조명하여 본 그의 작품은 조형물로써 자연을 이해함으로써 디자인의 모티브가 되는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일반인들이 주위에서 쉽게 보는 자연물 그대로의 모티브가 아니라 작은 물체를 현미경을 통해 보는 것과 같이 계곡, 삼림, 바다 등을 하늘에서 내려보는 관점에서 보이는 자연의 리

17) 아르튀스 베르트랑. 얀, *하늘에서 본 지구 366*, 조형문, 정형문 역 (서울: 새물결, 2003), p. 1.

18) 김석원, “Designer’s Favorite Artist,” *W코리아*, 7월호, p. 36.

<표 3> 안 아르투스 베르크랑의 사진(출처: 발견 하늘에서 본 지구 366)

안 아르투스 베르크랑의 사진과 설명



산맥, 튀니지아



꼬냇 지역 근처의 농경지, 샤흐르프, 프랑스



카카두 국립공원 내의 우라늄 광산, 노던준주



경작지, 과테말라



구르반사이칸 국립공원, 옴노고브



아를리트 우라늄광산, 아이르대산괴, 니제르



제벨 아흐다르의 계단식 밭, 오만



구리광산의 폐기물, 츠키카마타, 칠레

들을 볼 수 있다. 자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기적 구조와 형태가 가지고 있는 법칙을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유추하여 건축인 디자인에 응용해왔다. 응용하는 방법에 있어 사람에 따라 형태를 그대로 묘사하거나 자연의 특성을 변형시켜 응용하기도 하고, 그 특성을 생략·정리·제거하여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sup>19)</sup>. 자연은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같이 계속 생성·소멸·변화를 반복하는 흐름을 갖는 것은 어떤 리듬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이미지의 표현은 그 본래 자연이라는 조형물이 가지고 있는 유기적인 규칙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에서 조형의 요소와 원리가 자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며 자연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 Ⅲ. 결과 및 작품 제작

#### 1. 니트에 표현된 자연주의

자연주의에 대한 선행 연구 중에서 자연주의 복식을 디자인 요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는데<sup>20,21)</sup>, 이를 <표 4>에 니트웨어에 적용하여 니트로 표현될 수 있는 요소별 특성을 나타내었다. 니트는 아이템의 특성상 재단에 의한 형태의 선보다 전체적인 실루엣 중심으로 표현되며, 형태에 있어서도 내부에 사용된 디테일이 무늬에 의하여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자카드나 인타시아 기법, 손뜨개로 그 문양을 직접 나타내거나 자수를 통해 니트웨어 위에 표현하고 있다. 크로셰 기법은 거친 느낌과 손으로 표현되는 텍스처어를 그 자체의 표현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꽃무늬를 직접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꽃무늬의 표현은 니트웨어 위에 자수로 덧수를 놓거나, 니트의 편직기법인 인타시아를 사용하거나 프린트의 기법으로 표현되고 있었으며, 동물무늬는 편직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실루엣은 니트의 특성을 살려 인체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루즈한 실루엣을 들 수 있고, 드레스나 스커트 위에 늘어지게 레이어드하는 큰 사이즈의 튜닉

니트가 보이고 있는데, 헐렁한 실루엣은 니트에서 실루엣으로 표현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러프한 텍스처어의 니트 튜닉과 하의의 미스매치는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강조하고 있다.

니트웨어는 조직과 색채, 실루엣 등 모든 요소로 직·간접적인 자연스러움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원사 자체의 질감과 편직으로 나타나는 조직이 합쳐져서 소재의 재질감이 표현된다. 최근 컬렉션에서 보이는 경향은 <표 4>의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굵은 원사로 싱글게 짜거나 패치워크나 루프 효과 같은 강한 니트 텍스처의 표현으로 천연소재의 거친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모피의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가공되지 않은 원시적인 느낌으로 나타나고 있다. 헤어가 있는 원사의 사용으로 그 느낌은 더 효과적으로 보이고 있다. 다양한 컬러의 스트라이프 패턴은 조직과 어울려 히피의 느낌을 나타내기도 하였고, 다양한 조직을 사용하여 패치하면서 헐렁한 실루엣을 갖는 니트웨어는 그런지 룩으로 표현되었다.

#### 2. 작품 제작

본 연구에서 최근 컬렉션에서 보여지는 신자연주의의 표현을 위하여 다양한 요소를 사용하여 자연의 유기적이며 율동적인 리듬감을 표현하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디자인 1~디자인 4는 니트의 조직 중 파매기 조직을 사용하여 나타냈으며, 실루엣은 인체에 자연스럽게 맞는 긴 슬리브리스 원피스와 하나의 긴 원단을 연결하여 상의를 만들어 자연스러운 곡선을 나타내었다. 색채는 나무, 땅으로 연상되는 브라운 컬러를 주조색으로 하여 금색을 섞어 사용하였다. 소재는 자연의 질감이 느껴지도록 금색 메탈사가 감겨진 아크릴과 울의 혼용의 1/1.5's 밤색 로빙사와 1/10's 금색 메탈의 튜브사를 이용하여 한 가지 원사로 짜거나, 두 가지 원사의 합수를 조절하여 2합, 4합, 6합을 사용하였다. 다양한 합수의 원사로 겹조직(플레인, Plain), 안조직, 1×2 고무조직(리브, Rib), 마주보는 3×3 파매기(케이블, Cable) 등의 조직을 대비늘뜨기와 기계편직하여 만들었다.

19) 이지영, op. cit., p. 59.

20) 김희연, op. cit., pp. 31-41.

21) 이경아, op. cit., pp. 253-273.



<표 4> 현대니트에 표현된 자연주의

디자인 요소	니트에 표현된 자연주의 특성 및 사례					
디테일과 문양	자카르나 인타시아 편직기법, 손뜨개로 자연의 형태를 그대로 표현하거나 조직 모티브로 자연을 표현					
	 Alexander Wang. 07FW	 Laura Biagiotti. 07FW	 Antoni & Alison. 07SS	 Trend Les Copains. 07SS	 Kenzo. 06SS	
실루엣	편하고 자연스러운 실루엣					
	 Bora Aksu. 08SS	 Marc Jacobs. 06FW	 Stella McCartney. 06FW	 Sportmax. 06SS	 Jessica Ogden. 06SS	 Laura Biagiotti. 05SS
색채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색, 자연이 연상되는 색(그린, 브라운, 블루, 레드 등)					
	 Celine. 08FW	 Rodarte. 08FW	 Araks. 07FW	 Marc by Marc. 07SS	 Gen Art. 06FW	
재질	천연소재의 원사 천연 또는 합성소재의 원사를 사용하여 자연의 느낌이 나는 조직으로 표현					
	 Dries Van. 08FW	 Sonia Rykiel. 08FW	 Alexander Wang. 08FW	 Sonia Fortuna. 07FW	 Nina Ricci. 07FW	

디자인 기획한 아이템은 볼레로, 원피스, 베스트, 후드가 달린 머플러이다.

디자인 5는 대지의 굴곡을 응용한 디자인으로 튜블러 형태의 원피스 디자인이다. 색상은 짙은 갈

색, 카키색, 주황색, 노랑색을 섞어 사용하여 자연의 다양한 색감을 표현하였다. 스커트 부분은 고무뜨기의 변형으로 허리부분으로 올라갈수록 코를 줄여 플레어 스커트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상

<표 5> 작품 설명

작품		세부 설명	
작품1		모티브	
		디테일	
		설명	나무, 땅으로 연상되는 지형 표현
		아이템 구성	Design 1 원피스, Design 2 상의
		원사	아크릴과 울의 혼용의 1/1.5's 밤색 로빙사와 1/10's 금색 메탈의 튜브사
		조직	안조직(리버스, Reverse): 기계편직, 사슬뜨기 3×3 케이블(Cable): 대바늘뜨기
작품2		모티브	
		디테일	
		설명	산의 지형에서 보여지는 곡선과 햇빛에 반짝임을 골드로 표현
		아이템 구성	Design 3 원피스, Design 4 후드 머플러
		원사	아크릴과 울의 혼용의 1/1.5's 밤색 로빙사와 1/10's 금색 메탈의 튜브사
		조직	1×2 고무조직(리브, Rib): 대바늘뜨기 마주보는 3×3 짜베기(케이블, Cable)와 안조직 대바늘뜨기

<표 5> 계속

작품		세부 설명	
작품3		모티브	
		디테일	
		설명	대지의 굴곡을 응용
		아이템 구성	Design 5 원피스
		원사	짙은 갈색, 카키색, 주황색, 노랑색의 1's 울로빙사
		조직	고무뜨기, 메리야스뜨기
작품4		모티브	
		디테일	
		설명	지층의 크랙과 굴곡을 응용
		아이템 구성	Design 6 상의, Design 7 스커트 Design 8 머플러
		조직	안조직과 엮어뜨기 단판기

의부분은 메리야스뜨기로 몸에 맞도록 하였다.

디자인 6~디자인 8은 지층의 크랙과 굴곡을 응용한 디자인으로 입체 줄무늬 상의와 리플의 스커트, 리플 머플러로 구성하였다. 색상은 갈색, 남색, 카키색, 회색을 사용하였다. 상의는 부클레사를 이용하여 메리야스뜨기를 하고 중간의 줄무늬 부분

은 다른 색상의 원사로 끼워 시용하여 따로 메리야스뜨기한 후 첫단과 끝단을 엮어뜨기하여 입체감을 살린다. 하의는 향아리 모양의 패티코트를 사용하여 볼륨감을 살리고 단판기를 이용하여 만든 니트스커트이다. 코바늘 뜨기와 단판기를 이용하여 되돌아뜨기 기법으로 긴 리플을 다양한 색상으로

만들어 스커트 위에 고정시킨다. 머플러는 스커트에 덧붙인 리플단과 같이 단판기를 사용하여 리플을 길게 편직하여 완성하였다. <표 5>는 작품 제작을 위한 원사, 니트기법, 모티브, 완성한 실물 작품을 전체 착장으로 구성하여 나타내었다.

#### IV. 결 론

인간과 자연이 중심이 되는 개념은 시대마다 다른 용어로 표현되고 있으나 항상 이어져 왔으며, 현대 사회에 와서는 환경의 중요성으로 모든 분야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자연주의라는 문화현상은 복식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심미적 기능뿐 아니라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할 수 있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90년대 이후 복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기법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니트 기법을 통한 작품 제작은 니트 자체의 특성과 수공예 기법을 사용한다는 데 있어 자연주의를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따라서 자연주의 개념과 복식에서 자연주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얀 아르투스 베르트랑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복식 디자인의 원리인 리듬으로 자연의 이미지, 재질감, 색채 표현을 니트 기법으로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철학의 개념에서 시작된 과학적 사실주의가 문학과 다른 장르에서도 사용되었으며, 그 의미는 시대 흐름과 사용되는 분야에 따라 다른 의미로 또는 포괄적으로 사용되어왔다. 현대에는 환경을 중시하는 자연친화적인 의미가 강한 자연주의로 80년대 자연소재에 대한 소개가 있는 후부터 ‘에콜로지’ 용어와 함께 패션이 주목을 받았다. 그 이후 단순한 환경보존이 아닌 인간과 환경과의 공존으로 관심이 주목되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현대의 자연주의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주의는 인간 중심의 사상과 자연의 존중을 바탕으로 시대에 따라 다른 용어로 표현되었는데, 최근에는 산업화에 따른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의 심한 훼손으로 환경 보호나 자원 절약 등 다양한 환경 친화적 개념으로 대표되고 있다

둘째, 복식에서 자연주의는 시대별로 다르게 표현되어 왔는데, 복식의 요소인 형태, 색, 실루엣, 재

료로 표현이 가능한데, 자연의 형상을 그대로 표현하거나 이미지를 조형화하여 복식의 전체 또는 일 부분에 적용하는 방법, 자연의 색이나 자연이 연상되는 색채의 사용, 천연 소재의 사용이나 자연물의 거친 듯한 느낌을 텍스처어로 표현, 흐르는 듯한 실루엣으로 표현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 단순한 천연소재 사용이 아니라 자연의 이미지와 조형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다. 현대로 지나올수록 환경적 측면의 부각으로 인한 복고적, 리사이클링, 그린지와 같은 요소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인체의 실루엣을 살리는 단순한 인간 중심의 복식으로 나타난 반면, 현대로 오면서 기본적인 실루엣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의 인식을 복식의 재료나 방법을 통하여 과거와는 다른 자연주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인간이 환경과 밀접한 관계로 유지되는 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니트에서 표현되는 자연주의는 색과 재질에 있어 다른 복식과 유사하나, 실루엣은 니트웨어의 특성상 재단에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고 흐르는 듯한 느낌을 표현한다고 보아야 한다. 형태에 있어 자연물의 형상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무늬로 자수나 자카드와 인타시아의 편직 기법 또는 크로세로 표현이 된다. 재질은 원사의 성분과 상관없이 자체의 시각적 효과나 원사가 사용되어 편직 후 만들어지는 조직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자연주의를 니트 작품으로 표현한 8개의 디자인은 얀 아르투스 베르트랑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브라운 컬러를 중심으로 지형의 리듬을 표현하여 제작하였다. 지형의 곡선과 표면감을 니트의 조직과 원사로 최대한 표현하였다. 작품 1과 2는 파베기 조직을 주로 사용하여 인체에 자연스럽게 맞는 곡선을 볼레로, 원피스, 베스트, 후드가 달린 머플러로 제작하였다. 자연의 질감이 느껴지도록 금색 메탈사가 감겨진 밤색 로빙사와 금색 메탈의 튜브사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합수를 조절하여 겹조직, 안조직, 1×2 고무조직, 마주보는 3×3 파베기등의 조직을 대바늘뜨기와 기계편직하여 만들었다. 작품 3은 대지의 굴곡을 응용한 디자인으로 튜블러 형태의 원피스를 디자인하였다. 색상은 짙은

갈색, 카키색, 주황색, 노란색을 섞어 사용하여 자연의 다양한 색깔을 표현하였다. 스커트 부분은 허리부분으로 올라갈수록 코를 줄여 플레어 스커트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작품 4는 지층의 크랙과 굴곡을 응용한 디자인으로 입체 줄무늬 상의와 러플의 스커트, 러플 머플러로 구성하였다. 상의는 멜란지 갈색 부클레 사를 이용하여 메리야스 뜨기를 하면서 중간의 줄무늬 부분은 남색, 카키색, 회색 등 다른 색상의 원사로 끼워 사용하여 입체감을 살렸다. 하의는 스커트로 향아리 모양의 패티코트를 사용하여 볼륨감을 살리고 긴 러플을 다양한 색상으로 만들어 스커트 위에 고정시켜 지층의 굴곡을 표현했다.

본 연구의 작품에서 제시한 요소들을 활용하여 의류시장에서 판매되는 니트웨어에 적용하여 본다면 단순히 작품으로써의 자연주의가 아닌 현대의 또 다른 자연주의 표현방법으로써 디자인적 측면이 강화된 니트웨어를 소비자에게 제시하여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여 본다.

#### 참고문헌

- 김미영 (2002). “자연의 조형성을 응용한 현대 의상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석원 (2009년 7월호). “Designer’s Favorite Artist” *W코리아*.
- 김희연 (2006). “자연주의 복식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56권 7호.
- 이경아 (1998). “복식의 자연주의 양식에 관한 연구.” *복식* 37권 3호.
- 이봉덕 (2002).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6권 11호.
- 이윤미 (2007). “신사임당 초충도를 응용한 패션 디자인.”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7권 2호.
- 이지영 (2004). “자연의 리듬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니트디자인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흥숙 (1981). *서양복식사*. 서울: 교문사.
- 최경희 (2000). “현대니트의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4권 3호.
- “A Checklist for Sustainability” (2009년 7년 24일 [2009년 8월 31일 검색]). 삼성디자인넷;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samsungdesign.net/Report/IndustryTrend/TrendView/Default.asp>
- Skine, P. N. and L. R. Furst (1986). *자연주의*. 천승걸 역.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Yann, Arthus-Bertrand (2004). *하늘에서 본 지구366*. 조형준, 정영문 역. 서울: 새물결.